

전주서 만나는 한암·탄허 스님 선필

禪筆

전주박물관, '한국 큰 스님의 글씨'...9월 10일~10월 3일 특별기획전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인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의 유묵을 전주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다.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유병하)은 9월 10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주박물관 문화체험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한국 큰 스님의 글씨 - 월정사의 한암(漢岩)과 탄허(呑虛)'를 개최한다.

이 전시에는 평창 월정사, 대전 자광사,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에서 대여한 서예작품, 편지, 유품 등 80여 점이 소개된다.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특별전은 탄허 스님의 고향인 김제 만경을 비롯한 전북지역에 탄허 스님의 삶과 학문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전에서는 한암 스님(1876~1951)과 탄허 스님(1913~1983)의 글씨를 중심으로 불교의 경전과 깨달음, 고전의 경구, 삶의 자세 등 다양한 내용이 전시된다. 스님들이 유연하게 쓴 한문 글씨뿐만 아니라 진지한 한글 글씨가 갖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잘 보여준다. 특히 편지글에서는 글씨를 통해 전

해지는 따뜻한 마음을 살피 볼 수 있다.

근현대 변혁의 시대를 살다간 두 스님은 전통적인 유학과 고전을 수학하며 성장했으며 스님들의 글씨는 넓은 의미의 선필(禪筆)과 전통성을 기반으로 있다.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하기도 한 한암 스님은 선승이자 학승으로 참선을 중시했지만 계율을 지키고 경전을 연구하고 학문

필묵·유품 등 80여점 선보여

수행·학문적 깊이 여실히 드러나

하는 자세를 갖춰야만 올바른 수행,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고 평생 이를 실천했다.

한암 스님의 학식과 인품의 면모를 보여 주듯 글씨풍은 단정하고 정적인 필적으로 격조높은 선비의 글씨를 보는 듯 하다. 스님이 남긴 편지글은 근대 국한문, 한글 글씨의 중요한 자료이다.

한암 스님의 수제자인 탄허 스님은 근현



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시민들이 한국 큰스님 글씨전을 둘러보고 있다.

대 우리나라 불교계를 이끈 최고의 학승이며 20세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이자 유불도(儒佛道) 삼교에 능통한 대석학이었다. 늘 대중과 가까이 했던 스님은 필묵을 즐겨 생전에 많은 글씨를 남겼는데 대부분 스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이들에게 남긴 것

으로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 담겨있다. 탄허 스님의 글씨는 한암 스님의 글씨와는 달리 활달하고 기세가 빠른 필치가 특징으로 마음을 다해 짓고 쓴 섬세한 글씨에서는 스님의 학문적 깊이가 드러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다문화가정 추석맞이 전통문화강좌

부산 삼광사 힐링광장(대표 무원)은 9월 13일 삼광사 문화실에서 다문화 가정 20여 명을 초청하여 '한가위 전통예절문화강좌'를 개최했다.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한국 사회의 올바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행사는 한복입기와 절하기 등 한국의 명절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도와 덕면 스님의 힐링명상 등이 진행됐다.

힐링광장 다문화지원단 이영수 단장은 "한국전통예절 체험과 이해를 통한 결혼 이주여성의 가족 간의 친밀도 향상과 소



통을 이끌어 내고, 한국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문화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광사는 추석맞이 이날 참석 한 다문화 가족에게 쌀, 추석선물세트, 다문화합장주를 전달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부산불교보현회, 창립30주년 맞이 기념법회

30년을 한결같이 보현행을 실천해 온 부산불교보현회(회장 안성이)가 9월 13일 창립30주년을 맞아 "법당이전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아닐 안성취 보현회 회장은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고 사회의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한 지난 시간이 어느덧 30년이 지나갔다"며 "조심을 잃지 않고 보현행원을 실천해 나가는 불자단체로 더욱더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불교보현회는 1982년 작은 봉사모임으로 출발해,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소



년소년가장과 독거노인 생활비 및 병원 지원 등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사업을 실천해 온 부산불교계의 대표적 봉사행단이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전북지역 불교대학 연합체육대회



9월 15일 전주교육대 체육관에는 전북지역 불교대학 재학생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불교간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전북지역의 5개 불교대학 연합체육대회가 9월 15일 전주교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전북사암승가회(회장 원행, 금산사 주지) 주최로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전북지역 불교대학 체육대회는 각 지역의 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주정기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등 각 지역 불교를 이끌어 가는 불교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화엄, 전북, 이리, 남원, 무주불교대학의 재학생과 동문 1천여 명이 동참한 이날 체육대회는 열띤 응원 속에 배구, 탁구, 테니스, 2인3각 달리기, 릴레이, 단체줄넘기

등의 단체경기 위주로 진행됐다.

이밖에 제기차기, 투호, 율놀이, 줄넘기 등의 가벼운 게임을 통해 전북불교의 도약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치러졌다.

원행 스님은 신형 스님 대독을 통해 "미래 불교의 지도자들이 뜨거운 우정을 다지며 중단없는 정진과 자기 성찰을 통해 불교대학인들이 전북불교의 힘찬도약과 전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백호 전북신도회장은 "불교대학을 중심으로 지성불교, 복지불교를 위하여 전북지역의 불교대학인들이 화합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주·진안 종교인들의 아름다운 협약



9월 12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4대 종단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생명사랑 협약식 모습

최근 전주시의 종교관광성지와 계획으로 인해 종교간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과 진안군의 종교인들이 의미있는 협약식을 가져 대조를 보이고 있다.

무주군은 9월 12일 보산 스님(안국사), 홍해진 교무(원불교 무주교당), 이원철 신부(무주천주교회), 전영수 목사(무주기독교연합회)의 4대 종단과 '불우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오세득)가 주관한 이날 협약식은 봉사단체와 4대 종단이 함께 종교를 초월한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눔'의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협약식에는 홍낙표 군수를 비롯한 4대 종단 대표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김장 나눔에 대한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진안군도 9월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성목 스님(교림사), 김선지(원불교진안교구장), 전경성 목사(진안군 기독교연합대표), 박현웅 신부(천주교 진안성당) 등 4대 종단 대표들과 생명존중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진안군은 여러 종교계와 협력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한 시대에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널리 확산 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전주불자들 노인일거리센터에 쌀 보시

전주 환경불자회와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무소유실천팀은 한가위를 맞아 금산사 복지원 보리수마을 노인일거리센터(센터장 이성강)에 자비의 쌀 240kg을 보시했다.

환경불자회와 무소유 실천팀은 이후에도 매월 쌀 240kg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산사 복지원에서 운영하는 노인일거리센터는 40여명의 어르신들이 박스접기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생활불교동구협, 독거어르신에 효자손 전달

'생활불교동구협의회 함께하는 공덕회' (대표 대현)는 9월 14일 광주 동구정과 화순군청을 찾아 독거어르신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1000개(10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효자손은 어르신들의 피부와 몸의 혈액순환을 돕는 아이디어 상품으로 해운정사 묘덕 스님과 불자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졌다. 효자손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각 주민자치센터를 거쳐 지역별 독거노인에게 전달된다.

대현 스님은 전달 자리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회와 가정을 운영하는데 근본이 되는 것은 효(孝)라며 "작은 선물이 한가위를 맞은 어르신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전국 서울. 의정부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강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8-10 명화빌딩 (의정부역 1번 출구 2분거리) ☎ 전화 010-7415-0803 / 031)928-5030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불교연합회)